

설계미학에 대한 일반적리해

김 명 철

과학이 국가건설의 기초로,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 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그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은 설계분야에서도 반드시 구현해야 할 중요한 요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설계의 과학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설계의 과학화수준을 높인다는것은 최신과학의 성과에 기초하여 설계수단과 방법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위에 올려세운다는것을 의미한다.

설계의 과학화수준을 높이는데서는 첨단수준의 설계응용프로그램과 체계를 우리 식으로 연구개발하고 활용하는것과 함께 미학과 같은 사회과학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그와 결합시키는것이 중요한 방도로 나선다. 그것은 설계가 단순한 기술공학적인 착상, 구상만이 아니라 인간의 문화정서적인 수요도 고려하여야 하는 활동이기때문이다.

설계는 인간의 창조적활동의 중요한 고리이며 인간의 창조적활동의 목적은 물질적 및 정신문화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데 있다. 따라서 설계에서 인간의 물질적요구와 관련된 기술공학적이산을 앞세우면서도 인간의 정신문화적요구 특히 미적요구와 관련된 예술적방안을 고려하는것은 자연스럽고 응당한것이다.

그러므로 설계에서는 현대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기술공학적으로 최량화된 방안을 선택하는것과 함께 미학의 원리와 법칙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미적이며 정서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설계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오늘 설계학과 미학이 결합된 새로운 경계과학으로서의 설계미학이 나오고 그 연구가 심화되고있다.

설계미학에 대한 리해를 바로가지는데서는 설계미학이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그 연구대상과 방법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것이 중요하다.

설계미학은 설계학과 미학의 결합으로 출현한 경계과학이다. 따라서 설계학과 미학에 대한 초보적인 리해를 가지는것은 설계미학과 관련한 표상을 가지는데서 선결조건으로 된다.

일반적으로 설계라고 하면 새로 건설하거나 만들려고 하는 일정한 대상의 규모나 구조, 재료, 원가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계산하고 계획을 짜는 활동이나 내용을 말한다.

설계는 하나의 실천활동으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다.

인류사회의 첫 시기부터 사람들은 자기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목적의식적으로 진행해왔으며 설계는 인간활동의 중요한 고리로 되여왔다. 그러나 설계와 관련한 리론연구가 진행되고 설계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이 출현한것은 20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였다.

설계학이 20세기에 와서야 나오게 된것은 산업혁명을 계기로 인간의 물질적부창조방

식이 크게 변화된 것과 관련된다.

수공업시대에는 개별적인 사람들이 자기의 취미와 기호에 따라 물건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수공업제품에 대한 사회적수요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하여 생산규모도 비교적 작았다. 하지만 산업혁명을 계기로 공장이 생겨나고 생산이 흐름식으로 진행되게 됨으로써 수공업시대에는 별로 주의를 끌지 못하던 설계가 중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과학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확대적용됨에 따라 설계도 초기에 물질적부의 생산능력에만 한정되던데로부터 점차 인간과 환경, 인간과 사회, 생산과 소비사이를 조화시키는 수단으로 그 의미가 넓어지게 되었다.

자료에 의하면 1969년에 허버트 싸이몬(Herbert A Simon, 1916-2001)이 처음으로 설계학을 내올것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이후부터 설계학은 단편적인 논의로부터 전문연구로 넘어갔으며 연구결과가 출판되고 연구기관들이 설립됨에 따라 설계학이 빨리 수립되었다.

설계학의 중요한 특징은 우선 자연과학적인 특성과 사회과학적인 특성을 다같이 가진다는 것이다.

설계는 기술활동, 생산활동과 예술활동 등 여러가지 실천활동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진행되며 광범한 대중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설계활동이 이처럼 복잡하고 종합적인 활동인 것으로 하여 설계학도 종합성을 띠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설계가 물질적부의 생산과 연관되어있고 그것으로 하여 과학기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만큼 설계는 자연과학적인 특징을 가진다. 동시에 설계는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과도 밀접히 관계되는 것으로 하여 사회과학으로서의 특성도 가진다.

설계학의 중요한 특징은 또한 역사연구와 이론연구가 서로 결합된다는 데 있다.

설계는 형태가 다양하다. 설계형태의 이러한 다양성은 사회생산력발전수준이 서로 다른 것으로 하여 존재하면서도 설계대상의 차이 등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설계학의 사명은 설계의 기본법칙을 연구하고 정확히 밝혀냄으로써 인류의 문명과 사회적진보를 추동하는데 있다.

설계학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첫째로는 사람의 인식에서의 특성을 근거로 하여 설계과정과 법칙을 연구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사람들의 사회적관계를 고려하여 각이한 사회적관계속에서의 설계요소를 연구하는 것이다. 셋째로는 해결하려는 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수단을 고려하여 설계과정에서 서로 연관되는 물리적 및 심리적요소 그리고 그것들의 작용과 특징을 연구하는 것이다. 넷째로는 설계의 기본내용, 기본범주와 역사적변화를 언급하는 기초우에서 설계를 위한 실천활동과 미학사상의 변화법칙을 탐구하는 것이다.

설계학의 연구범위에는 설계형태학과 부호학연구, 설계방법학연구, 설계대책과 설계관리연구, 설계미학연구, 설계심리학연구, 설계물리학연구, 설계과정과 설계표현연구, 설계경제학 및 가치학연구, 설계문화학, 사회학연구, 설계교육연구, 설계평가연구와 설계사연구 등이 포함된다.

총체적으로 보면 설계학을 설계사, 설계리론과 설계평가 세 갈래로 구분할 수 있다.

설계사는 설계의 역사적발전과 그 법칙을 연구하는 과학으로서 설계가 발생하고 발전해온 역사적과정을 밝힌다. 그 범위에는 시각전달설계, 제품설계, 환경설계, 다매체설계

등을 포괄하는 설계발전사가 포함된다. 설계리론은 설계실천의 리론적총화로서 넓은 의미에서 설계기초리론과 설계평가를 포함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설계기초리론을 뜻한다.

설계평가는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제품을 설계하고 현상을 설계하는데서 의거한 리론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며 리론적분석을 통하여 설계의 사회적의미와 미학적가치를 밝혀내는것을 통하여 사회적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설계리론은 설계라는 사회적실천을 반영하여나오고 설계활동을 과학적으로 총화한것으로서 설계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해당 설계리론이 설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작용을 하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 설계리론의 과학성과 현실성이 좌우된다.

설계활동은 설계리론의 발전을 추동한다. 설계활동은 설계평가의 기초이며 설계활동이 없으면 그에 대하여 평가할수 없다.

한편 설계평가는 설계활동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설계평가는 설계리론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설계리론의 과학성과 현실성을 담보하게 하며 나아가서 설계가 옳바로 진행되도록 한다. 설계평가는 이와 함께 설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새로운 견해를 가지게 하고 설계활동을 규범화하며 설계리론에 새로운 사상을 제기하고 설계발전을 추동한다.

이처럼 설계학은 사회경제발전과 문화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온 하나의 종합적인 성격을 띤 학문이다.

설계미학의 발생은 미학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미학사상은 력사가 오래지만 미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출현한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미학의 발생은 인류의 미감, 미학사상발전의 필연적결과이다. 미감이 사물현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람들의 반영이고 느낌이며 평가라면 미학사상은 미와 미감 등에 대한 비교적 체계적이고 리론적인 총화이다.

1735년에 도이칠란드의 바움가르텐(Alexander Gottlieb Baumgarten, 1714—1762)은 《시에 관한 철학적사색》이라는 박사론문을 발표하고 처음으로 《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750년에 그는 그동안 진행해온 강의에 기초하여 《미학》 제1권을 정식 출판하였다. 그는 인간의 심리활동이 지, 의, 정 세측면을 포함한다고 보면서 《지》 즉 리성적인식을 연구하는 학문은 론리학이고 《의》 즉 도덕적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은 료리학이지만 유독 《정》 즉 감성적인식을 연구하는 학문은 당시까지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정》을 연구하는 학문인 미학을 내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학은 감성적인식을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하여 그는 《미학의 아버지》로 불리웠으며 미학은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빠른 발전을 이룩하였다.

미적현상은 인간의 미적활동에 기초한다. 다시말하여 미적현상은 아름다운것을 창조하고 향유하려는 인간의 사회적실천활동을 떠나서 존재할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미적활동은 인간의 사회적실천활동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고 한다.

미적현상, 미적관계, 미의 법칙 등은 다 인간의 미적활동과 관련하여 존재하며 변화발전한다. 그러므로 미에 대한 탐구, 미의 법칙, 미적현상에 대한 해명은 구체적인 미적활동에서 출발하고 미적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주어질수 있다. 그런것만

름 미학의 연구대상은 미적현상, 미적감수, 미창조, 미감상과 미교육 등을 포함한 인간의 미적현상들이다.

이로부터 설계활동, 예술활동은 사람들의 현실적인 미적활동의 중요한 분야인것만큼 미학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설계활동, 예술활동에서의 미적현상을 밝혀내야 한다.

이처럼 설계학과 미학은 각기 자기의 고유한 학문적특성을 가지면서도 다같이 인간의 사회적실천활동과 밀접히 련관되는것으로 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될수 있다. 바로 여기에 설계미학이 발생하게 된 중요한 전제가 있다.

설계미학의 발생은 설계학과 미학이 교차된 필연적결과이다.

설계학과 미학의 교차에 대하여 말할 때 반드시 언급하여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력사적으로 설계와 예술이 밀접히 결합되어있었으며 그 관계는 오늘에 와서 더욱 뚜렷해졌다는것이다.

사실 미학에 비해볼 때 설계미학은 보다 새롭고 보다 교차적인 학문이다. 하지만 설계미에 대한 분석은 설계의 발생과 마찬가지로 일찌기 출현하였다. 인류최초의 물질적부를 창조하기 위한 활동은 설계요소를 내포하고있었다. 그러나 사회발전의 일정한 단계에 와서 물질적부를 창조하기 위한 활동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미감상을 주되는 목적으로 하는 순수예술이 분리되어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설계에 비하여 순수예술의 력사는 상대적으로 매우 짧다고 할수 있다.

설계미와 미에 대한 분석은 인류의 미적경험의 총화이다. 다르게는 인류최초의 미학사상이 설계와 관련한것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바로 순수예술이 물질적부를 창조하기 위한 활동과 그를 위한 설계와 분리된것과 마찬가지로 순수예술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미학도 설계를 대상으로 하던 초기의 설계학으로부터 분리되어나온것이라고 할수 있다.

인류의 미에 대한 인식이 심화된것은 예술발전과 밀접히 련관된다.

예술의 출현은 인류의 미감이 일정하게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예술이 미학연구의 주요대상으로 되면서부터 설계는 지난 시기의 고전미학에서 거의나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일정한 력사적기간 미학의 령역에서 차요시되어온 설계학은 산업혁명이후에 와서 설계가 중시되고 동시에 설계에서의 미학적문제가 제기되면서 다시금 미학이 관심하는 대상으로 되기 시작하였다.

설계에 대한 요구가 급속히 높아짐에 따라 미학은 다시금 설계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으며 설계는 오늘날 예술과 함께 미학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연구령역으로 되었다. 이런것으로 하여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미학에서 설계미학연구는 예술미학연구와 미의 기본원리연구를 대신하여 미학의 주되는 추세로 되고있다고까지 하였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생활의 질에 대하여 보다 중시하게 되었다.

생활의 질에 대하여 말할 때 그것은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할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것은 그의 미적측면이다.

인간생활의 그 어디에나 아름다움이 있으며 사람들은 갈수록 자기의 생활을 보다 아름답게 창조하려고 한다. 이에 대하여서는 누구나 생활을 통하여 체험하고있다. 사람들은 옷을 차려입어도 자기의 아름다움을 돋구려고 하고 음식을 차려도 보기 좋게 차리려고 하며 집을

꾸려도 화려하고 멋있게 장식하려고 한다. 이것은 설계에서 미학적측면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설계가 미학의 중요한 관심사로 되는것이 필연적이라는것을 말해준다.

한편 미학연구도 종전의 예술에 국한되어 예술에 복무하던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발전에도 적극 이바지하며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적요구에도 부합되는 문제들을 다루는데로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오늘 건축미학, 광고미학, 생활미학 등 다양한 미학분과들이 출현하고있다.

설계미학은 20세기 20년대에 출현하였다. 원래 명칭은 공업예술, 기술미학 또는 생산미학이었다. 설계미학의 새로운 학문으로서의 출현은 인간생활과 더욱 가깝게 하였으며 설계를 미학의 높이에 올려세우고 탐구를 진행하게 하였다.

설계미학도 미학발전의 결과이며 미학의 중요한 분과이다.

설계미학은 이처럼 설계학과 미학발전의 필연적결과이며 사회발전의 합법칙적과정에 나온 응당한 귀결이다.

응용미학의 한 형태로서의 설계미학은 설계영역에서의 미학적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자기의 고유한 연구대상을 가진다.

설계미학은 첫째로, 설계미학의 기본원리를 연구한다.

여기에는 주로 설계미학의 성질, 설계미의 특징과 본질, 설계미의 구성요소, 설계에서의 형식미법칙 등이 포함된다.

설계미학은 둘째로, 설계형태미를 연구한다.

여기에는 시각전달설계와 미, 제품설계와 미, 환경설계와 미, 다매체설계와 미 등이 포함된다.

설계미학은 셋째로, 설계미학사상의 역사적변화를 연구한다.

설계미창조는 인류력사와 마찬가지로 오랜 기원을 가진다. 설계와 관련한 미학사상은 여러가지 형식으로 인류의 설계활동과 여러 문헌자료들을 통하여 전해지고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설계미창조에 대한 인류의 인식을 총화할수 있게 하며 설계활동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

이처럼 설계미학은 자기의 고유한 연구대상을 가지고 사회경제발전은 물론 인간생활을 보다 윤택하고 문명하게 하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설계미학연구에서는 일련의 방법이 적용된다.

설계미학연구에서는 우선 철학적방법을 기초적인 연구방법으로 한다.

설계미학연구에서 철학적방법을 기초적인 연구방법으로 한다는것은 설계미학연구가 철두철미 인간의 운명개척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진행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모든 학문연구가 다 그러하듯이 설계미학이 비록 자기의 고유한 연구대상을 가진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운명개척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자는데 목적을 둔다.

만일 설계미학이 인간의 운명개척에 이바지하며 사회의 문명발전을 추동하는것을 목적으로 내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의도 가지지 못한다.

설계미학연구에서 철학적방법을 기초로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것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착취사회에서 설계미학연구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인간의 운명개척에 이바지하

는 방향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극소수 착취계급의 리운추구의 목적과 저속한 취미에 따라 진행되어온것과 관련된다.

설계미학연구의 가장 올바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는 철학은 사람중심의 철학인 주체철학이며 주체의 철학적방법은 설계미학연구에서 의거하여야 할 가장 과학적이며 완성된 방법이다.

주체철학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본성으로 하며 자주성이 생명이라는것을 해명한데 기초하여 모든것을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대하고 모든 변화발전을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대할데 대한 관점과 립장을 밝혀준다.

주체철학이 밝힌 사람중심의 철학적방법이 밝혀짐으로써 설계미학연구는 새로운 과학적기초우에 올라서게 되었으며 인간의 자주성실현과 사회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설계미학연구에서는 또한 론리적인것과 실증적인것의 통일을 연구방법으로 한다.

설계미학연구에서 론리적인것이란 설계미학이 연구하여야 할 측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련관되면서 짜인 리론적면모를 갖추는것을 말한다.

론리적인것은 설계미학의 본질을 탐구하는데 도움을 주어 그것이 과학적인것으로 되게 한다.

론리적인것이 결핍된 미학은 독자적일수 없고 체계화될수 없다.

설계미학연구에서 실증적인것이란 설계미학에서 제기된 원리와 리론이 현실에서 실현될수 있는 정도를 검증하는것을 말한다.

모든 학문은 현실에 발을 붙인 학문으로 되여야 하며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해답을 줄수 있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그러한 학문들만이 사회발전과 사람들의 생활적요구를 실현하는데 의의있는 학문으로 될수 있다.

설계미학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활환경과 수단 등을 창조하기 위한 과정에 미학정서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요구에 의하여 나온 학문인것만큼 마땅히 뚜렷한 실천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설계미학으로 하여금 순수 리론적인 문제만을 내세울것이 아니라 그 리론의 실현성여부에 대하여 엄격히 고려하는것을 중요한 요구로 내세운다.

따라서 설계미학연구는 론리적인것과 실증적인것을 밀접히 통일시키는 방법을 내세운다.

설계미학이 발생한것은 그리 오래지 않지만 그것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과 물질적 및 정신문화적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려는 사람들의 지향을 반영하여나온 학문으로서 갈수록 사회생활에서 커다란 역할을 놓고있다.

우리는 설계미학에 대한 리해를 바로가지고 설계도면우에 새겨지는 점 하나, 선 하나에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옳바로 반영함으로써 그것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마리어 설계미학, 미적현상